ПЭК 8
УЛ.ЧАЙКОВСКОГО 19, 21
ПОС.ВО США

풍작—나의 체질에는 이것이 제일이 구먼…

3 - AUG - 9
Copy ____ 1960

홍 종호 그림

화살

1959년 9월 하반호(110)

대렬은 커간다

백 인균 그림

배정품만 기다리는 사람들

안주 탄광 종합 상점은 이 탄광 지구에 청년 분점과 해방구 분점까지 합하면 식료품 상점만도 세개를 가지고 있다.

탄광만으로서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는 그 외에도 농업 협동 조합 직매점이 여러개 나와 있다.

그런데 9월 초 이틀날 저자 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신리 상점에서 나오면서 하는말이

《푸성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 왔드니 벌써 다 팔았다누만…》

《글쎄 왔다는 소리를 듣고 가면 벌써 없군 한다니깐. 어떤 때는 해질 무렵에 콱 갔다가 썩이는가 하면 저렇게 늘상 채소를 떨구지 않소?》

그러자 청년 분점과 종합 상점 식료품부에 들려 가자고 한 아주머니가 앞장 서 가는바람에 아주머니들이 다 따라서 그리로 갔다.

청년 분점에서는 소고기 등을 팔고 있었으나 채소는 농업 협동 조합 직매점이 나온 후로는 별로 팔아 본 일이 없다고 한다.

종합 상점 식료품부나 해방구 분점에서도 상부에서 배정 받은 식료품들만 팔고 있을 뿐이였다.

종합 상점 부지배인 동지의 말씀 마따나 《로동자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비중을 높여야 할터인데 상부 배정품에만 매달려 있어야단 났습니다》

지도 간부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물론 새로운 대책이 세워 지겠지만 이 종합 상점에서 금년 7월말까지 식료품 총 판매액 가운데서 겨우 7,9%가 자체 리용 생산을 거친 상품이였으며 6,6%가 자체 수매를 거쳐서 판매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듯 이 상점 지도 일'군들은 손 모아 놓고 우에서 배정 해 주는 배정품이나 공업품에만 매여 달려 있어 지방 원천을 탐구하여·식료품을 가공 판매 하는데는 관심을 덜 돌렸다.

문덕 종합 상점 제 1 상점 식료품 매대 판매원은 이렇게 말한다.

《벌써 계획에 들어 있는지 오랜 부식물 가공반은 조직한다는 말 뿐이고 아직까지 조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점에 오는 손님들은 이제는 우리 지방의 가공 식료품은 아예 없으려니 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문덕군 인민 위원회 지도 간부들이나 상업부 일'군들이 도시,로동자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식료품 가공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당 결정을 왜 이처럼 형식적으로 대하는가?

상업부 일'군들은 우리야 상품을 파는 편이고 만드는 편은 아니니까 그 책임이야 상품 원천을 확보 해 주어야 할 농업부에 있으니 화살을 농업부에 돌리려고 하고 서기장 동지는《그러면 어떻게 할까요?》하고 남의 일처럼 손님한데 물으시지 말고 우선 가까운 읍내 식당들과 식료품 상점을 가끔 돌아보시고 주민들과 담화도 가끔 하시면 《어떻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풀려 나갈 상싶다.

김 상애

새 지휘관을 맞는다

송 용남 그림

톱날식 실동률

사람의 습관이란 이상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점잖은 분이 변소엘 들어가 앉아 있는 데 밖에서 녹크를 하니까 으젓한 목소리로 《에— 어서 들어 오시오!》하고 대답을 했다고 《습관의 힘》이라고 풍자하는 것을 들은 기억도 나지만……

자동차는 휘발유로만 움지기는 것에 습관이 되여 있는 평양시 자동차 관리처 제 4 사업소 일'군들이 지난 날 국내 연료로 교체 할 데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토의하기는 했지만 좀처럼 실천에 옮기지 않고 습관처럼 그저 수입해 온 휘발유에만 매여달려 있었다. 이렇게 차일 피일 밀어 오기만 하다가 지난 7월에 대담한 용기를 내여 단꺼번에 100%로 교체하고 나니 그에 발맞추어야 할 여러가지 대책이 미처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실동률은 톱날처럼 날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만 하고 있다.

그런데 운수 부장 동무의《이밥 먹다 조밥 먹는 격》이라고 한 말씀이 그럴싸하게 이 《톱날식 실동률》을 비호한다.

어느 때인가 외국의 귀중한 손님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나라에서 무진장하게 캐내고 있는 무연탄을 보시고 금싸래기와 갈다고 하신 일이 있다. 그러니 조밥은 커녕 금싸래기를 먹는 셈이다.

이렇게 국내 연료차로 100%로 교체하자 운전수들의 기세는 와짝 올랐다. 13분 동안에 발동을 해 가지고 휘발유차에 못지 않게 달리는가 하면,불과 며칠 안되여 련결차까지 달고 휘발유차에 못지 않는 실동률을 올리는 동무들이 늘어 갔다. 그러나 지도 일'군들의 지도는 그에 앞서지 못했다.

우선 휴차 내력에서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료 부족과 시동 준비로 되여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산'더미 같이 쌓이여 있는 무연탄으로 브리게트를 만들고 저장하고 하는 사업 조직을 치밀하게 조직하지 않았다. 모처럼 만들어 놓은 브리게트를 잘 저장하지 못하여 습기를 받아 못쓰게 한다던가, 우기대책을 세우지 않고 로천 작업을 하게 하여 비오는 날이면 부득이 작업을 중지하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 결과 다음날은 멀끔한 차가 연료 부족으로 우두커니 서 있어야 했다. 또한 기술적 대책이 미리부터 세워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뒤따르지 못한 관계로 어떤 차는 휘발유차나 같은 시간으로 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련결차를 달고 휘발유차와 같은 성능으로 달리는가 하면 어떤 차는 저므도록 발동을 하다 말 때도 있다.

그러니 우선 지도 일'군들은 국내 연료로 교체함에 있어 더욱더 사업소 내 질서를 세우고 세밀한 사업 조직과 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비가 오면 작업을 중지하고 자동차가 멎어서 있어 보았대야 하늘이나 비가 물동을 대신 실어줄 것인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자식도 많으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흔한 것이 무연탄이고 보니, 많은 로력을 들여 만든 브리게트를 되는대로 한지에 야적하고 있는가 하면, 젖으면 브리게트를 만들기 곤난하다는 무연탄도 야적한채 여름 장마를 겪은 셈이다. 그러니 이 사업소 지도 일'군들의 주먹치기 사업도 어지간히 짐작할만 한 일이다. 얼마 안있으면 우리 나라에는 눈이 나린다. 이 사업소 지도 일'군들의 주먹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계속 주먹치기를 하려는지?

김 상애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추수 탈곡한 곡식이 적지 않게 허실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데 대한 무관심한 현상들을 볼 수 있다

탈 곡

홍 종호 그림

립석리 협동 조합의 자급 비료 확보

평북 향산군 립석리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8월 25일 현재 자급비료를 한톤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허 능택 그림

형식은 갖추었건만

축산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이 나오자 중화군 인민 위원회에서도 들끓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군내 지도 일'군들로 구성된 지도 구루빠를 리들에 파견하였다.

도에서 맥류 후작으로 사료용 옥수수를 1,100정보 심으라는 계획이 내려 왔을 때에도 군 농업부장은 지도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1,100 정보가 아니라 그 이상 파종하도록 지시하오. 이번 전원 회의의 기본 과업이 사료를 해결하는 거니까, 사료를 많이 심는게 제일 중요하오.》

그들은 중화 농장에서 좋은 종축들도 바꿔 왔다.

(인젠 구해 놓은 종축을 죽이지 않아야 돼. 억지로 구해 놓은 것을 죽이면 일한 흔적이 없어지니까 우선 수의사 강습부터 해야지)

그리하여 수의사 강습이 진행되였다.

농산 작업의 기계화를 위해서 군 농기구 공장을 확장하고 농기계를 얼마 생산하라는 과제도 주었다.

이러고 보니 농업부장은 자기가 할 일은 다 해 놓은 것 같았다.

(이젠 누가와도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 농업부에서 일을 안했다고는 안하겠지. 이젠 농업 협동 조합에서만 잘하면 가축은 하나가 열로, 열이 백으로 막 뿔어날 판이지.)

6월 전원 회의가 있은지 두달도 되기 전에 벌써 농업부장의 머리에서는 축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져 갔다. 들끓던 분위기도 잠잠해졌다. 그는 심어 놓은 사료를 잘 비배 관리하고 있는지, 가축들의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돌리지 않게 되였다. 8월말이 되여서야 농업부장은 사료에 대한 관심이 떠올라 축산 지도원을 불렀다.

《금년에 사료를 모두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소? 문서를 만들어 놔야겠는데.》

《시비도 하고 제초도 했으면 정당 30톤은 날건데, 심어만 놓고는 그냥 내버려 둬서 정당 20톤도 채…….》

《20톤도 못나? 비배 관리를 잘 하라는 지시는 줬소?》

《물론 지시야……》.

《그럼 됐소. 우리 할 일은 다 해 놨으니까, 지시한 것과 지도한 걸 모두 적어 두우, 근거 문건으로 남게, 그래야 누가 검열 와도…또 비배 관리를 잘 못했다 해도 118%나 초과 파종 했다는 걸 알면 그리 크게 지적하진 않을거야, 그러니깐 누가 오면 사료 파종은 118%로 초과했다는 이걸 강조하우》

축산 지도원이 나간 다음에 농업부장은 그래도 꺼림칙한 구석이 있었다.

《왜 비배 관리를 안하고 내버려 둬서…… 누가 보면 118%나 초과 파종한건 고려도 안하고 비배 관리 안했다고 시비하겠지? 제길, 그러나 우린 비배 관리 잘 하라고 지시는 주었고 내 할건 다 했으니까, 사료 제초하는 것까지 농업부에서 해 주어야 할건가.》

그러면서 여전히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그리고 가축들의 생산과 육류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축산 일'군들의 강습도 조직하지 않고 딴 사업에만 주의를 돌렸다.

도에서 육류 생산 정형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왔다.

농업부장은 축산 지도원을 불렀다.

《지금 육류 생산이 어떻게 됐소?》

《약 20% 했습니다.》

《20%?? 왜 고거 밖에 안되우??》

종축들을 구해 주었으니 인제는 막 대량적으로 생산해 내고 있으려니 생각 하고 있던 농업부장은 놀랬다.

《우선 새끼 생산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많이 생산해야 고기도 나오겠는데 금년에 한배도 못난 돼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추당리 같은데선 년초에 어미 돼지가 75두 있었는데 지금까지 새끼 낳은건 다섯마리 밖에 안됩니다. 다른 조합들도 이 보다는 좀 낫지만 형편이 비슷합니다》.

《왜 새끼를 못내오? 좋은 종축까지 해결해 줬는데》.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선진 기술을 몰라 그러겠지요. 축산 일'군들에게 기술 강습을 주어야 할 걸……》.

《그래 일년에 한배도 못 낸게 기술 강습을 주지 않아서요? 생산 하려는 노력이 없으니 그렇지, 그전엔 돼지를 어떻게 길렀소? 돼지 생산까지 군에서 나가 해 줘야겠소? 그래 돼지들의 산자성을 올릴데 대하여 지시는 줬겠지?》

《지시야 한두번만……》.

《일 없소, 우리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 지시 준거나 적어 둬 두시오》.

《그리구 새끼를 못내는게 사료를 잘못 먹인데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씰로쓰 생산을 3% 밖에 못했으니 영양'가 있는 씰로쓰를 충분히 먹였겠습니까.》

《씰로쓰두 3% 밖에 안됐다구? 에이 참!》

농업부장은 버럭 화가 났다.

《왜 일일히 지도 안해도 척척 못한담》.

리 운봉

월동 준비 할 때가 왔다

조 명식 그림

—조합에선 우리 집을 안지어 주는데
우리 끼리라도 하는 수 밖에 없군!

선후차를 모른다

—축산업 발전에 대한 강연회를 하겠습니다
—좀 참소, 구락부나 멋지게 짓고 해 봅시다

최 영근 그림

감 떨어지기 만 기다리다가

덕천군 수매 사업소 일'군들은 금년초에 각 리들과 수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수매 지도원들을 파견하였다.

(좀 헐하게 해 먹는 방도는 없나?)

적지 않은 수매 지도원들이 그러했지만 신흥리에 나가는 수매 지도원도 이런 것을 생각했다.

(그렇지, 될 수 있어, 조합 관리 위원회를 발동시킨단 말이야, 관리 위원들을 모아 놓고 수매 사업은 국가적으로 극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합에서는 수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아주 강조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끔 아주 그럴듯 하게 력설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할 일은 관리 위원회에서 다 해 주니 우린 앉아서 자며 수매 계획을 할 수 있지)

수매 지도원은 관리 위원장을 만나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수매 사업의 의의와 유리성을 강조한 다음 자기가 할 선전 사업까지도 관리 위원회에 책임을 지웠다. 그리고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건 루기적으로나 무계획적으로 할 사업이 아니니까.》

《글쎄 계약했다 고대로 보장해 낼가? 하여튼 념려 마시우, 많이 수매하도록 할테니.》

《계약을 안했다가는 후에"난 모르오„할려고 그러오? 우리 수매 사업소에도 국가에서 계획이 내려 오는데 계약 없이는 안되오. 관리 위원회에서도 이 계획을 보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잊으신 모양이군》

그래서 관리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게 되였다.

(이젠 계약까지 체결했으니 싣고 오겠지. 책임이 있으니까)

사업소 일'군들은 안심하고 조합에서 수매하려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수매 사업소로 가져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사업소 소장은 수매 지도원들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수매하려들 오지 않소?》

《지금 파종 때니까 바빠서 못오겠지요. 이제 바쁜 대목이나 지나야……》.

얼마간 지났다. 그래도 수매 사업소로 싣고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웬 일이요? 수매 지도원 동무!》

《요즘은 모내기 때니까 그러겠지요. 농촌에서 모내기 때는 고양이 손도 빌어 쓴다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긴 그래.》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관심하지야 못할 겁니다.》

이앙기가 지났다. 그래도 수매하러 수매 사업소로 찾아오는 사람은 적었다.

수매 지도원은 동이 달아 리에 내려 갔다

《관리 위원장 동무, 수매 어떻게 됐소?》.

《지금 눈코 뜰 새가 없어 그럽니다. 수매할 건 많은데두 손을 낼 수 있어야지.》

《하여튼 계약을 지키지 않다간 관리 위원장 동무 책임 져야 합니다?!》

수매 지도원은 계약에 매달려 이따금씩 내려가 왜 안가져 오는가 독촉만 하고는 돌아오군 했다.

《어찌 된 판이요?》

《소장동무, 이앙이 끝나자 제초 작업이 꼬리를 물어서 그럴 겁니다. 제초 작업까지 끝나야 좀 한가할테니 그 때에 밀몰아 싣고 오려고 그러겠지요.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제초기가 지나고 상반년도 훨씬 지나갔다.

수매 사업소 소장은 상반년도 수매 실적을 드려다 보았다.

상반년 총실적 75.7%, 농부산물 0.7%…

《음?! 농산물 부장이 리에 한번도 안내려가 보더니 꼴 좋—다. 그 다음 육류는 68%…》

소장은 화가 났다

《나가서 책임 추궁을 해야지, 계약까지 체결해 놓구….》

소장은 리들에 내려 가다가 도중에 협동조합원들이 일하는 곳에 들려 얼마나들 수매했느냐 물었다. 그러나 수매 지도원도 수매 사업의 의의를 선전 안했고 관리 위원회에서도 바빠서 선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수매 사업은 국가에 뿐만 아니라 수매시키는 사람의 수입을 높이는데도 다 같이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수매 원천을 탐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조합원은

《그런 것도 수매하는 줄 알았더면 뜯어다 수매시킬 걸, 우리 어머니두 힘든 일은 못하시지만 그런 산채나 뜯어 오는 일은 할 수 있었는데…왜 벌써 와서 선전 사업을 하지 그랬소?》

대답이 막힌 소장은 관리 위원회에 가서 관리 위원회에서는 왜 계약까지 체결해 놓고 수매하려 오지 않느냐고 추궁쪼로 물었다.

《조합에 지금 슈매할 것은 많은데두 싣구 갈 사람파 달구지가 나지 못해 못가져 갑니다. 그리구 농산 사업이 바쁘다 나니 좀 잊어 버리는 때두 있었수다. 수매 사업소에서 실어갈 걸 가지고 와서 수매해 가면 안되우? 그러면 품값은 못하지 않을 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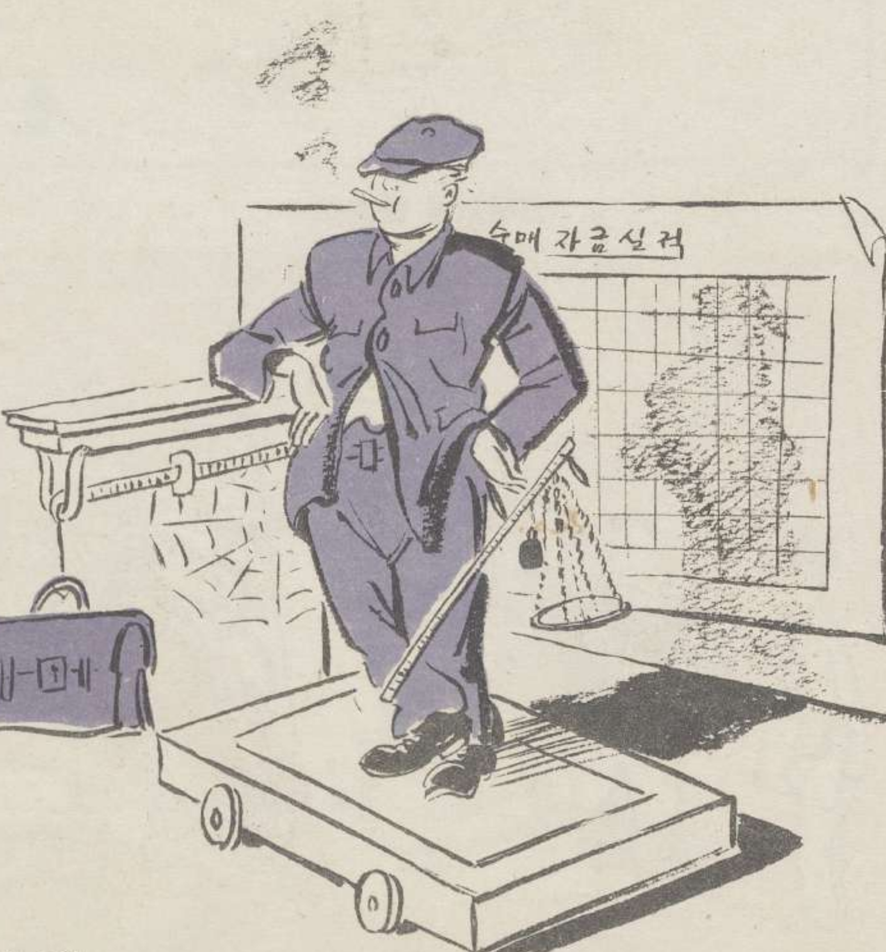
그러자 관리 위원들도 바빠서 싣고 가지 못하니 수매 사업소에서 와서 가져갈 수 없느냐고 한결같이 제기하였다.

소장은 수매하러 오지 않는다고 추궁하려다 되려 땀을 뺐다.

리 윤봉

평북 향산군 가좌리 수매 지도원은 수매 원천 탐구 사업에 무관심한 데로부터 8월 25일 현재 수매 자금 실적이 겨우 48.5%에 불과하다.

그림자가 실적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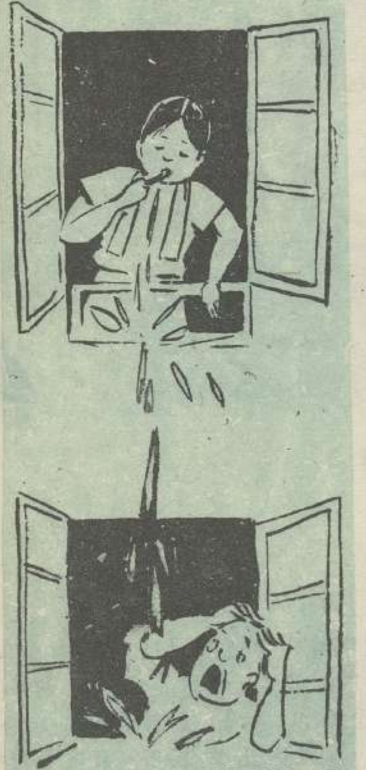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김책시내 수도'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함북도 김책시 도시 경영 사업소
정 광윤 그림

폭포 아닌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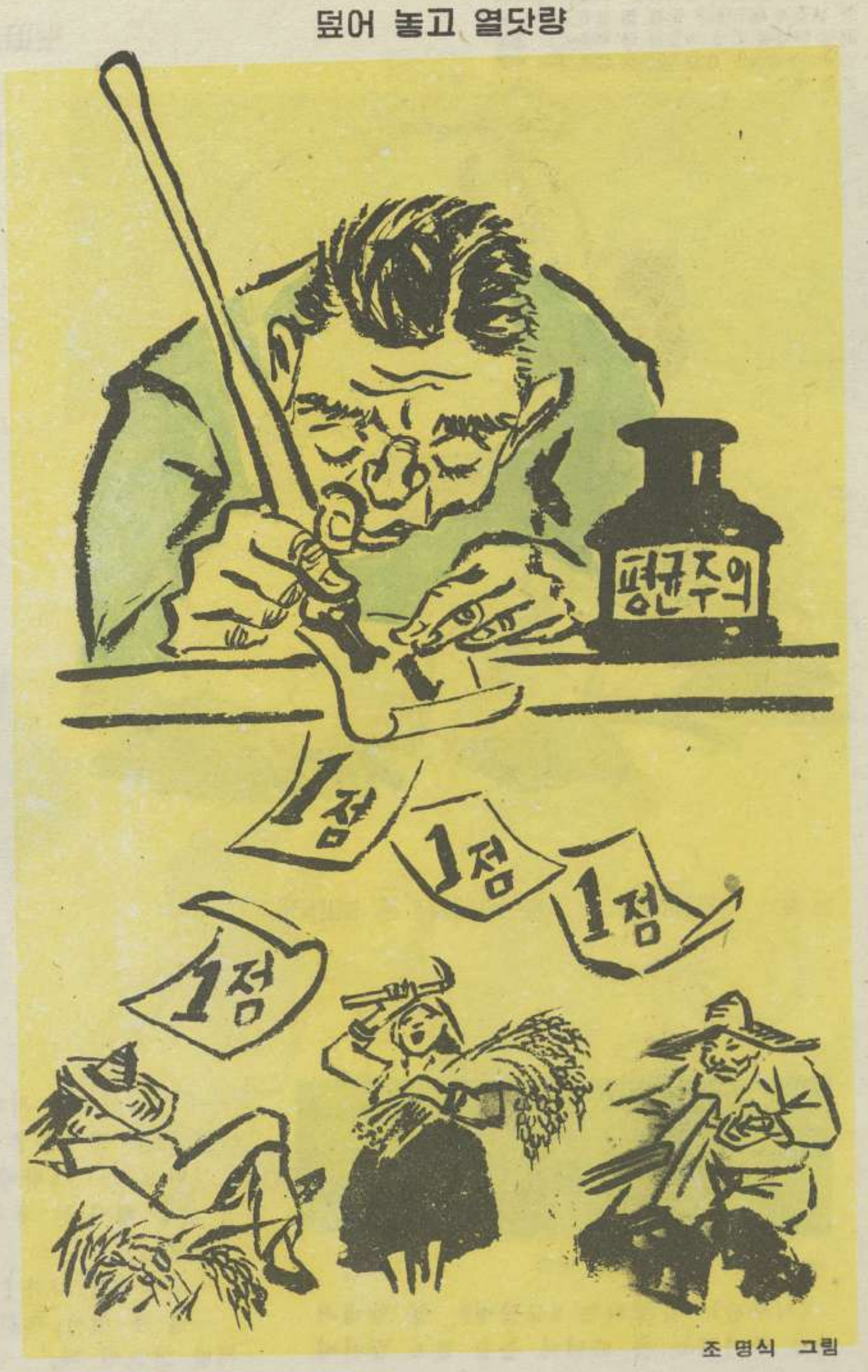
평북 구성 방직 공장 문 영주 그림

지우개는 《이'발》이 있나

학생용 지우개는 환영 받지 못한다. 1학년 2학년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글'자를 지우려면 지우개는 이'발이 있는지 학습장을 찢어 먹군 한다.

함북도 김책시 서남동 31반
정 광명 그림

덮어 놓고 열닷량



조 명식 그림

《관리 위원장의 작업 지시》

관리 위원장—오늘은 김 동무가 우리 집을 수리하시우, 점수는 최고 점수를 줄테니…

김 동무—그럼 나도 래일 우리 집 일을 할테니 최고 점수를 주십시요

리 용남 그림

바쁜 철에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써클과 체육 사업을 전문화시키고 있는 데로부터 많은 로력을 랑비하고 있다

조합 선수—할아버지, 여기 뽈 떨어 지는 것을 못 보았어요?
할아버지—젊은 녀석이 1년 내내 뽈만 차면서도 그래 뽈두 하나 똑똑히 못 차다니

허 능택 그림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략탈로 말미암아 남조선 농민들은 평균 매 농호당 5만 여 환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약 40만호의 리농민과 300만명의 절량 농민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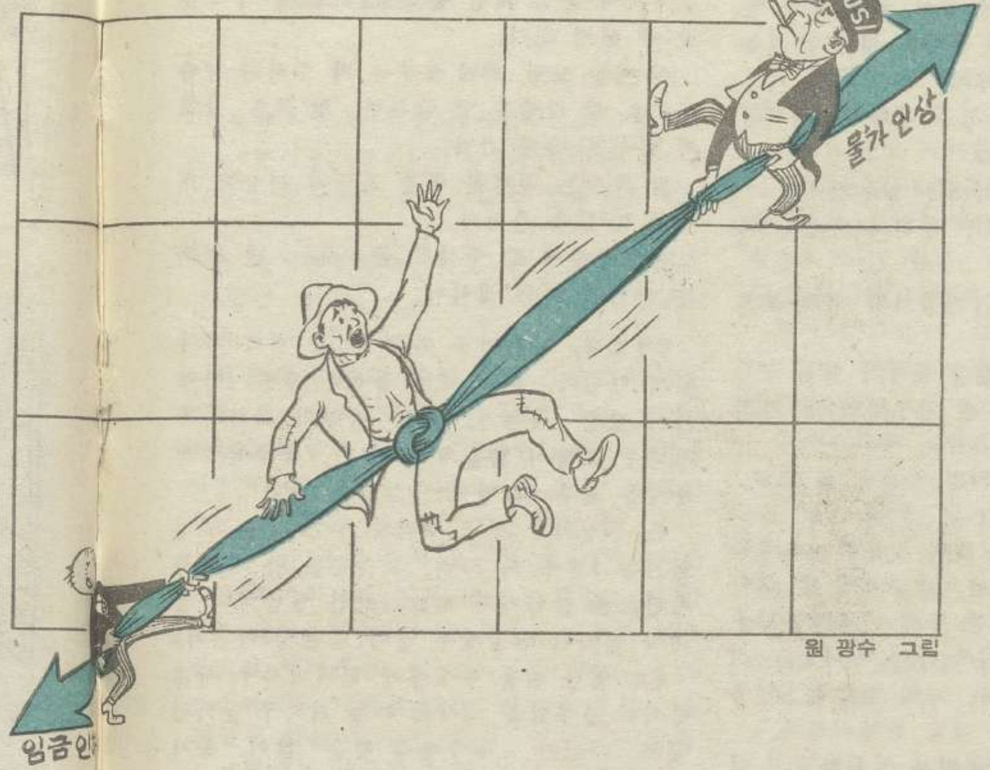
보따리

송 용남 그림

도적놈에겐 돈 보따리

농민에겐 가난 보따리

죄인다



원 광수 그림

타작은 끝났다 (남조선 추수기)

백 인균 그림

《대한 민국》의 《보건 정책》

박 내숙

《의무관》 리 창하는 《장관실》 문 밖에서 약간 주저하는 듯 하더니 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섰다.

《보건 사회부 장관》 손 창환은 돋보기를 걸고 미국 상무성에서 발행한 무슨 상품 목록을 뒤적거리고 있었다.

—어느 국이지?

손 창환은 안경 넘어로 그를 물끄럼히 쳐다 보면서 묻는다.

—방역국에 근무하는 의무관 리 창하 올시다.

—방역국? 어 그렇지, 국장에게 분부했어. 방역 대책은 념려 말아. 만전을 기했으니까…

—각하! 전국에 뇌염 환자가 9월 15일 현재로 1,53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식 새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536명? 작년 보담 적군, 이봐, 미국에서 새로 발명한 예방약을 시험 중인데…그…약명이 뭐드라? 여하튼 걱정할 게 없어.

—《린텐》이라고 하는 약 말입니까? 그것은 시험해 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작년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다른 대책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무슨 대책? 예산이 어디 있어?

—환자가 계속 늘어 갑니다.

—이봐, 이러쿵 저러쿵 말할게 없어. 병이 어디 뇌염 뿐이야? 디프테리야, 장질부사, 발진티브스… 그밖에도 있어. 전염병 도는 건 년중 행사야, 무슨 수로 그걸 일일이 막아낸담.

—그렇지만 각하! 정세가 아주…

—별 수 없어, 병은 돌아도 주의해서 걸리지만 않으면 돼.

《보건 사회부 장관》은 시계를 드려다 보더니 돋보기를 벗어서 안경갑에 집어 넣은 후 《방역국》 관리를 뒤에 남긴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보건 상담일》이란 쪽패가 붙어 있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방역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응접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보건 사회부 장관》은 매주 첫번째 월요일을 《보건 상담일》로 정하고 오후에는 그의 응접실에서 국한된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보건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날 그의 응접실을 찾아 온 첫번째 손님은 어느 고관 부인이였다.

—선생님, 경기 중학에 다니는 제 둘째 아들놈이 독감에 걸린지가 벌써 2주일이 넘는데 약을 써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치료 방법이 없겠습니까?

—허 그거 참 안됐습니다. 여름 감기는 위험합니다. 그 …저… 《옴나 마이신》을 한번 써 보시지요. 《옴나 마이신》은 페니실링과 스트렙토 마이신의 항균 작용과 면역원 옴나딘의 인체 방어 기능 항진 작용으로 치료 효과를 내는게 특징입니다. 보통 페니실링 료법에서 오는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대단히 합리적인 제재입니다. 적응증으로 말하면 독감, 폐염, 편도, 선염, 농양, 림파선염, 중이염, 산욕, 패혈증…

—저…환자는 산모가 아니구 중학생이예요.

—아 그렇든가요. 하여간 이 약은 만병을 치 올시다.

—그 약을 구할 수 있나요?

—네. 성림 병원에서 팝니다. 서대문구 교남동… 령천행… 교남동 전차 정류장 앞입니다. 값도 눅습니다.

둘째번 방문객은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쉰세 가량의 중년 신사였다.

—선생님, 저는 위'병으로 옹근 2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모조리 다니고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는데 효과를 못 보았습니다. 무슨 좋은 도리가 없습니까?

—허. 그 참 안됐군요. 위장병엔 《스토마》나 《이마루》 이상 없습니다. 만성 위장병에는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써 보시지요. 내과 전문인 성림 병원에 그 약이 있습니다. 입원실도 완비돼 있습니다. 서대문구 교남동 107번지. 저… 령천행 교남동 전차 정류장 앞입니다.

세번째 들어온 사나이는 코'수염을 기르고 돈 가방을 든 어딘가 좀 허룸한 체신을 한 위인이였다.

—장관님, 헤헤, 저는 한국 각지의 중고등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약간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판명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9할 이상이 기생충 보유자들입니다. 간 지스토마, 촌충, 분선충, 편충, 효충, 회충 12지장충…기생충 없는 학생이 없습니다. 예… 그러하와 사계에 권위 있는 기생충 약을 구하여 학생들에게 권유하고자 하온데…

—허, 거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보건 사회부 장관》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그가 약 행상이라는 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기생충 약으로는 《텔미드》와 《산토멜》 이상 없습니다. 서대문구 교남동에 있는 성림 병원에 그 약이 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저… 학교를 순회하면 시끄러운 일도 많은데 장관님 추천장이나 하나…

《장관》은 약행상이 내미는 《추천장》에 염전만 한 실인을 꽝 찍어 주었다.

네번째 손님은 얼굴에 두드레기가 숭숭 돋은 묘령의 녀성이였다.

—선생님, 저는 얼굴의 이 두드러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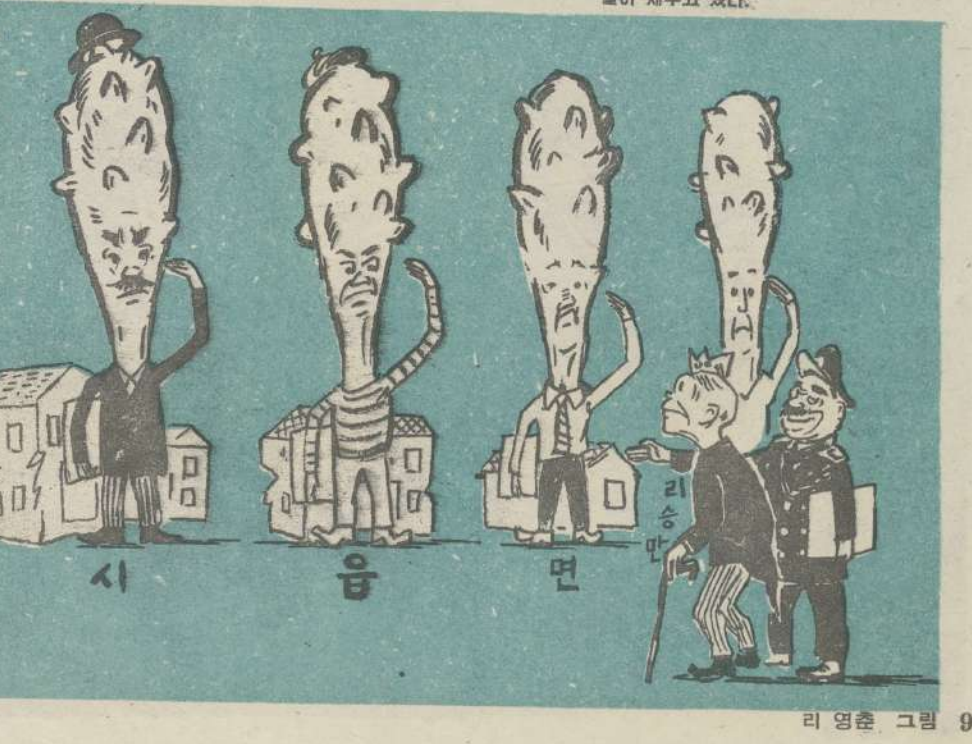
—어 념려 없어요. 뷔너스 후렉클 크림을 발라 봐요. 서대문구 교남동에 있는 성림 병원에 그 크림이 있어요…

손님들을 보내고 손 창환은 혼자서 중얼댔다.

《의학 박사요 대한 적십자사 총재요 보건 사회부 장관인 내가 서대문에 대리 의사를 두고 개인 병원을 경영한다고 아무도 나를 나무랠 사람은 없다. 모두들 해 먹는 판인데 나라구 해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선거 준비

리 승만 도당은 《정부통령 선거》앞두고 《시. 읍. 면. 동장》들을 《자유당》일색으로 갈아 채우고 있다.



리 영춘 그림

쌀 값

홍 길남

미곡상 박 태산이 단'골 기생집에 들어 섰을 때 《농림부 장관》은 벌써 술상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허허, 장관 나리, 벌써 하시는구려》

《박 주사, 시간을 기다리다간 세월이 있어야지요》

박 주사라고 불리우는 뿌로카는 《농림부 장관》과 전부터 매우 친한듯이 롱을 섞어 가면서 《장관》 앞에 앉아 술부터 들여 마셨다.

《역시 술도 미국제가 제일이야》

《근데 박 주사, 사람을 청해 놓구 주인이 늦게 오는 법이 있소?》

《헤헤, 애가 장관 나으리 허구 단 둘이서 좀 얘기해 보겠다고 간청하니 어찌겠소, 눈치를 차릴 수 밖에, 헤헤—》

박 주사는 교활하게 웃으면서 기생에게 눈을 껌벅거렸다.

이윽하여 박 주사가 눈질하자 기생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여보게, 추수 때 가서 풀어 놓을 쌀이 얼마나 되오? 장관 감투를 썼다가 엇다 쓰겠는가. 이번 통엔 한몫 봐야지》

《요런 술잔간이나 가지구 내가 움직이겠는가. 그래두 장관인데》

《뭘 그래, 그거야 상례대루 있는건데》

《전데기는 자네가 먹구 날더러 국물만 마시라는거지》

《이젠 제법 흥정이네, 그쯤이야 내가 모르겠는가》

《여보게, 신사는 계산을 똑똑히 허는 법이야. 우물쭈물허다가 후에 친구끼리 돈 가지구 싸우겠는가?》

이렇게 흥정을 붙였다.

사연인즉 이러하다.

가을 추수기에 가서 괴뢰 정부가 보유한 쌀을 몽땅 털어 시장에 내놓으면 쌀'값이 폭락될 것이다. 이 때를 타서 미곡상 박 주사는 밑천을 털어 각지에 있는 끄나풀을 시켜 쌀을 거두어 들인다. 괴뢰 정부는 쌀을 계속 내 놓아 쌀'값을 더욱 폭락시킨다.

추수한 농민들은 풀뿌리와 씨름하면서 얻어 쓴 고리채를 갚기 위하여 얼마 안남은 쌀이나마 개'값으로도 팔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봄이 되면 농민들은 또 쌀 구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를 노린 괴뢰 정부는 박 주사와 약속한대로 쌀 방출을 딱 끊는다. 쌀'값은 날개가 돋친듯 올라 간다.

박 주사는 독점한 쌀을 조금씩 시장에 내놓아 쌀'값을 올린다.

이렇게하여 박 주사의 금고에는 돈 뭉치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여보게, 장관이구 뭐구 한 몫 벌어 놔야할게 아닌가. 자네 어데 농림부 장관 자리가 오랠줄 아는가. 력대 장관이 그러하듯 자네두 오래지 않을거네. 근데 공무원에게 준다는 쌀은 몇 달이나 밀렸는가?》

《공무원이구 뭐구 우리가 주는 쌀을 구경한지는 1년두 더 되네. 그것들두 다 사바사바판으로 살아가지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몇되박 안되는 배급쌀루 살아 가는줄 아는가》

《그 밀린 쌀을 추수통에 털어내자구, 자네들이야 공무원을 생각해 하는 거라구 말하면 될거 아닌가. 추수통에 쌀을 많이 풀어 쌀'값이 떨어질 수록 자네 몫이 커가는 걸세.》

《박 주사, 그만한걸 내가 모른다구 일러주는 말인가. 술이나 마시게. 미국서 들어온 그 냄새 나는 밀가루두 추수끝에 풀려구 지금 창고에 쌓고 있는 거라네. 추수때만 되면 아마 쌀'값이 개'값으루 떨어질거네》

《오케, 역시 장관이 장관이로군, 일은 그렇게 배'장이 맞아야 척척되는 거야》

×

이렇게 흥정은 붙었다.

이런 흥정은 추수를 앞두고 여러 곳에서 각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것은 음페된 간악한 착취 방법이다. 농민들은 봄과 여름에 비싼 쌀을 사 먹고 가을에 가서는 남조선 신문들이 쓰다싶이 《생산비도 못되는 개'값》으로 팔아야만 되게 마련이다.

이 외에 남조선 농민들은 《토지 수득세》《분배 농지 상환곡》《수세》등등의 각종 명목으로 쌀을 수탈 당하며, 수십종의 세외 부담으로 피와 살을 뜯긴다. 이리하여 남조선 농민들은 만성적 기근 상태에서 허덕이며, 1년 내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류례없는 농민 생활의 빈궁은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 생산은 해마다 감퇴되고 다른 편으로 략탈은 더욱 강화된다. 이렇게 하여 남조선 농촌 경리는 총 파산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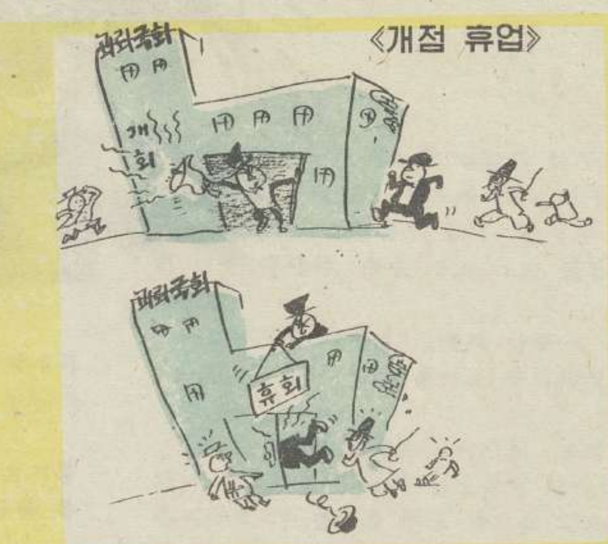
조선의 곡창 지대로 이름 났으며 일제 때만 하더라도 일제 놈들이 매년 700만석—800만석씩 략탈해 가면 남조선이 오늘은 매년 500만석 이상의 미국의 썩은 밀'가루를 들여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성적인 기근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런 현상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가혹한 략탈의 엄중한 후과인 것이다.

류행어 만화 사전

《독 차지》

《개점 휴업》



《빚' 잔치》

남조선의 중소 기업체들은 자금난 원료난 동력난 판로난으로 계속 파탄되고 있다.

《말법 세상》

남조선 잡지 《신태양》에 의하면 리 승만 도배의 《판사》가 술'집에서 행패 끝에 늙은 술'집 주인을 살해한 사실을 보도 하고 있다.

《사람 잡이 월간》

남조선에서는 5월 15일까지의 1개 월간에 429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126명이 사망하고 619명이 부상을 입었다.

백 인균 그림

비상한 계획

오 정삼

《자유당 조직 위원회》위원장으로 있다가 괴뢰《농림부 장관》이 된 (3월 20일) 리 근직이가 게거품을 물고 일대 장광설을 늘어 놓고 있다.

그 장광설이란 게 바로 력대 괴뢰 장관들이 입만 벌리면 실속 없이 짖어대는 소위 《5개년 계획》이다.

괴뢰《농림부 장관》리 근직 각하께서 1958년을 기산으로 하는《제 2차 5개년 계획》복안을 내놓고 괴뢰《장관》취임식 제 1성을 하였다. 그 자리가 바로 기자 회견 석상이다.

《제 2차 농업 증산 5개년 계획》이라니까 아마《제 1차 5개년 계획》은 그야말로《계획》대로 끝났기에《제 2차》 소리를 하는가 하고 남조선 인민뿐만 아니라 괴뢰 《정부》내 관리들까지도 비웃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괴뢰들이 하는 짓이란 가히 짐작할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근직 각하는 우둔하게도《쟁쟁》한 기자들 앞에서 게거품을 물고 《5개년 계획》운운하며 으식대고 있는 판이니 이 괴뢰의 나발을 들어 보기로 하자.

리 근직 각하가 그렇게도 《자신 만만》하게 조 자룡이 헌칼 쓰듯 내흔들고 있는 《제 2차 농업 증산 5개년 계획》이란 이를테면 《5개년 계획》의 5년 후인 1962년에 가선 남조선 농촌에선 미, 잡곡 통틀어 현재보다 일약 32%의 증산을 보게 된다는 리론이다.

일약 32%의 증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농촌은 해마다 리농민으로 괴페화되여 가고 그 우에다가 한재와 풍수해로 말미암아 농토가 조각이 나고 백천 매매에 오히려 32% 이상의 감산으로 알고 있는 남조선 기자 제씨들에겐 놀랍고도 《비상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자 제씨들이 괴뢰《농림부 장관》 리 근직이에게 한마디씩 질문을 들어대지 않을 수 없어

《농가 경제 피폐의 도가 해마다 극심해가고 있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32%의 증산을 할 수 있겠는가?》《농가 부채의 루진, 절량, 리농, 립도, 선매 심지어 흑전 선매 등의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저마다 화살을 드려대는데 괴뢰 《장관》 리 근직 각하는 태연한 기색으로 자기 소견을 피력했다.

《〈다산즉승 소산즉패〉 즉〈이길 싸움엔 이기고 질 싸움엔 진다〉고 부채 농가, 절량 농가, 립도 선매, 흑전 선매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야 어떻게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바라겠느냐! 그러니까 비료를 충분히 사용할만한 착실한 농가만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이것이 이길 싸움에 이기는 비결이다》

라고 뇌까리고 나서 그 우에다 한술 더 뜨기를

《인구 증가가 문제요. 제한된 국토에 농촌 인구는 잡초처럼 무섭게 느니《대한 민국》은 다산하는 농촌에 속한다. 다산하는 농촌의 인구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 정책을 써서 이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에서〈해외 이민 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참으로 외교 정책의 성공이다. 나의〈농업 증산 5개년 계획〉은 이상의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때 《장관》책상 우의 전화 벨이 울리였다. 리 근직은 전화를 받아 들자 금시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죽는 놈들이 있어야 사는 놈들도 있지 않느냐! 장마통에 무리 죽음 난리야 사람으로써 할 수 없는 불가 항력인 천재 지변이 아닌가!》하고 수화기를 내려 놓으면서 기자 제씨들에게 《그렇지 않은가!》고 제딴에는 호'기 있게 웃으면서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그 말에 누구 하나 대'구하는 기자는 없었다.

괴뢰 《장관》 리 근직은 덤덤히 앉아 있는 기자 제씨들을 한번 훑어 보고 나서 한다는 수작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즉 농사도 제땅을 가지고 소도 있고 비료도 충분히 작만할만 한 농민이래야 농사를 잘 지을 것이 분명한데… 그까짓 소작하는 놈들을 어떻게 상대해서 농업 증산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런 기초 우에서 나의 확고한 〈농업 증산 5개년 계획〉을 세웠고 매년 홍수 피해를 당하는 농토는 대상도 아니했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여서 오히려 남조선 현실로 보아 인명의 감축은 좋은 현상이다》라고 더욱 기세를 부리며 호통을 쳤다.

그런데 괴뢰 《농림부 장관》 리 근직이가 기자 제씨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 삼아 호통을 치고 있는 《농업 증산 5개년 계획》이 바로 홍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남조선 농민이 죽어 넘어가는 그 죽음을 강요함으로써만이 제한된 국토의 협소를 해결 하자는 것이며 《다산하는 농촌》의 넘친 농민들을 해외로 이민하자는 것이 바로 《5개년 계획》의 골자이다. 이 말을 바꾸어 놓는다면 《농업 증산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가선 남조선 농민 총수의 32%가 감축될 터이니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32%의 증산이 되는 셈이 아니냐는 론법인 것이다.

리 근직의 《농업 증산 5개년 계획》이 농민들에게 비지에 쑥도 없는 《비상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삼척 동자라도 깨달을 수 있다.

홍 종호 그림

개는 개편

최 철수

(리 승만의 생활 실기 한토막)

새벽녘까지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혼곤히 늦잠이 든《경무대 경찰서 (리 승만의 집을 경비하는 경찰서) 서장》은 소스라쳐 벌떡 일어 났다.

밑도 끝도 없이 당장 들어 오라고 앙발지게 외마디 소리를 빽 지르고 수화기를 집어 던지다 싶이 끊어 버리는 애리스(리 승만의 양첩)의 서슬로 보아 당장 목아지가 날아날 변고가 생긴 것만 같았다.

일제 시대부터 20여년간 순사 노릇 해 먹은 경험을 가진《서장》인지라 정복을 주어 입고《경무대》까지 달려 가는 데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물에 빠진 생쥐들 모양 쭈그리고 서 있는 한 무리의 경찰놈들을 앞에 놓고 노기 등등해 있는 리 승만은 헐레벌떡거리며 나타난《서장》을 보자 무엇인가 호통하려고 눈등과 입술을 실룩거리기 시작했다. 옆에 섰던 애리스가 재빠르게 가로챘다.

《서장! 개 당장 찾아 오라. 못 찾으면 대단 대단 재미 없어》

뒤따라 리 승만이 실룩거리던 입을 열었다.

《이놈들, 모두 눈알이 없냐? 집에서 개가 나가도 모르고, 네놈들 믿고 앉아 있다가는 개 목숨만 아니라 내 목숨도…》

전라남도《도지사》가 《진상》해 온 진도(珍島) 개는 (토종)이라 하여 가지고 오던 날로 내쫓다 싶이《비서》에게 물려 주고 미국에서 수천 딸라를 드려 사 온 양개, 더욱이 애리스가 캥캥핥다 싶이 애지중지하면 개를 분부대로 찾아 오지 못하는 날에는 《서장》목아지쯤은 열백개 날아날 것이 뻔했다.

경무대 경찰서원들에게 비상 소집령이 나리고 서울시내는 물론 린근 경찰서와 파출소에까지《대통령 각하의 개》를 수색하라는 비상 지시와 개의 사진이 전달되였다. 일부 신문들에는《경무대의 개 행방 불명 사건》이 보도되였다. 야단법석이 일어 났다.

공명심에 사로 잡힌 경찰놈들은 《대통령 각하 아들처럼 사랑하는 개》를 찾는 공로를 세우려고 서울 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그쪽으로 달려 뛰고, 개똥 무지만 보아도 떠나지 않고 두리번 거렸다.

그러나 개의 행방은 72시간이 지나도록 묘연하였다.

경찰놈들은 개장사들과 개장집 주인들을 잡아다가는《대통령 각하의 양개》를 내놓으라고 주리를 틀었다.

리 승만과 애리스의 명령대로 산 개를 찾지는 못했으나 개를 훔쳐 간 개 장사와 그 개를 샀다는 개장집 주인을 체포한 경찰의《민활한 활동》은 경무대 경찰 서장의 용기를 북돋우었다.

《각하, 개장사놈이 소기름으로 개를 유인해 내여다가 개장집에 팔아 먹었습니다.》

다음에 떨어질 벼락이 무엇인지 원통 속은 타오르건만 리 승만의 앞에 말뚝처럼 서서 보고하는 경무대 경찰 서장의 등골과 이마에서는 콩알 같은 땀방울이 흘러 나렸다.

《이 천치 같은 녀석들이 개장집이란 델 가서 개를 찾아 오지 못하고 무얼하는거냐 에엥》

그러지 않아도 떨리는 리 승만의 목소리는 노기 조차 어리여 캥캥거리는 소리만 같았다.

《각하! 황송하외다. 개장집이라는 데서 개 고기로 만들어 팔아 치웠습니다. 개장집 주인놈도 잡아 넣었습니다.》

경찰서장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 승만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 나면서 가슴에 십자를 그었다. 그리고《개 고기를 먹는 야만들도 모두 잡아 가두어》

하고 호통을 쳤다.

수 많은 개장 애호가들이《개고기 먹는다는 죄》로 개장집에서 무리로 붙들려 경찰서로 끌려 갔다.

이런 뜻하지 않았던 재난이 서울 거리에 새로운 공포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3~4일 지난 후 석양을 타고 리 승만의 양개는 다시 경무대에 나타났다.

인민들로부터 고립된 리 승만과 애리스가 인민들을 두려워하여 경무대 담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라 하겠으나 아무런 죄 없이 동료들과 격리되여 담안에 갇혀 있는 데 싫증이 난 리 승만의 양개는 벗들을 찾아 가을바람을타고 거리를 싸다녔던 것이다.

돌아 온 개를 맞이하여 리 승만과 애리스는 축배를 들었다.

《그러면 그렇지, 미국 종잔데 함부로 죽겠소》

몇잔의 양주에 얼근해진 애리스는 개가 핥던 손'바닥으로 리 승만의 실룩거리는 볼룡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종알거렸다.

경무대 경찰서 류치장 문이 메여지도록 몰려 나오던 사람들은 담 밖에 나서자 이구동성으로 웨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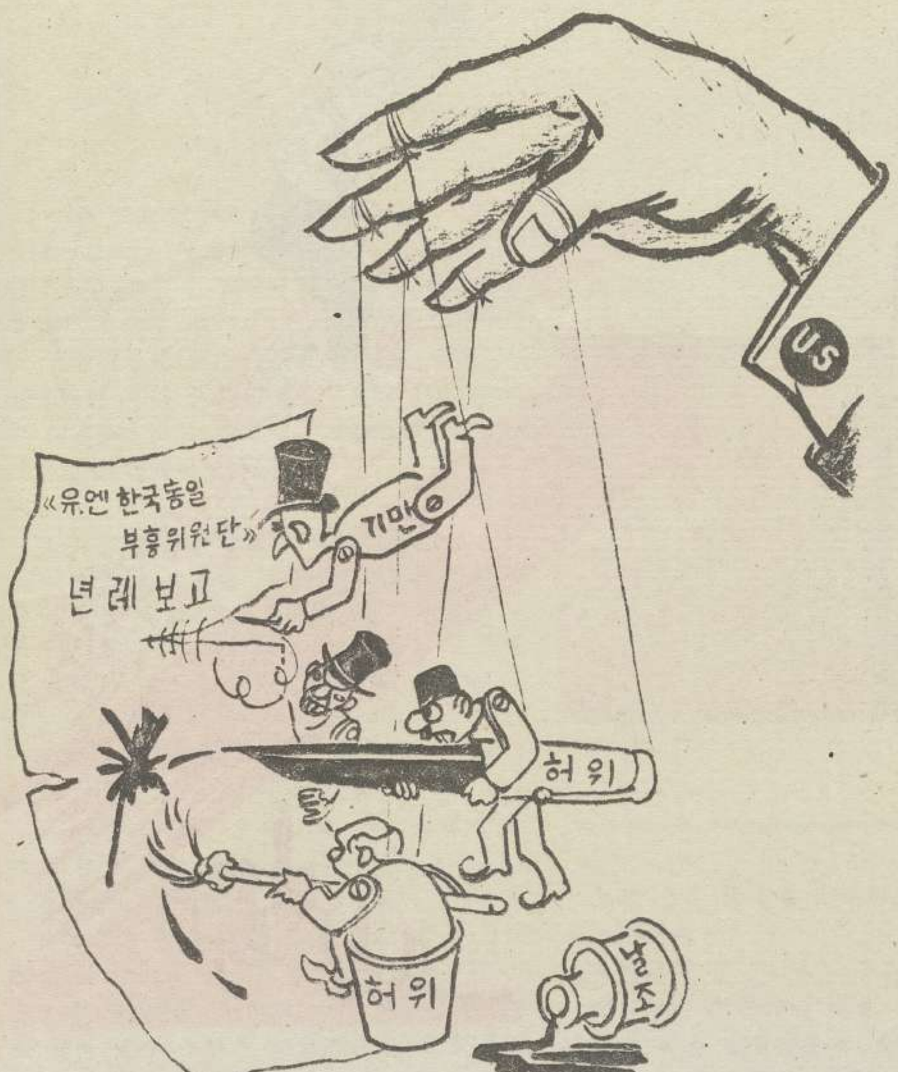
《개는 개 편》이야.

군사 정전 위원회 미국 대표

미제 침략 계층의 대변자인 군사 정전 위원회 미국측 대표는 자기들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엄폐할 목적으로 우리 측에 대한 허위 중상 날조를 일삼고 있다.

홍 종호 그림

미제 사환'군들의 《년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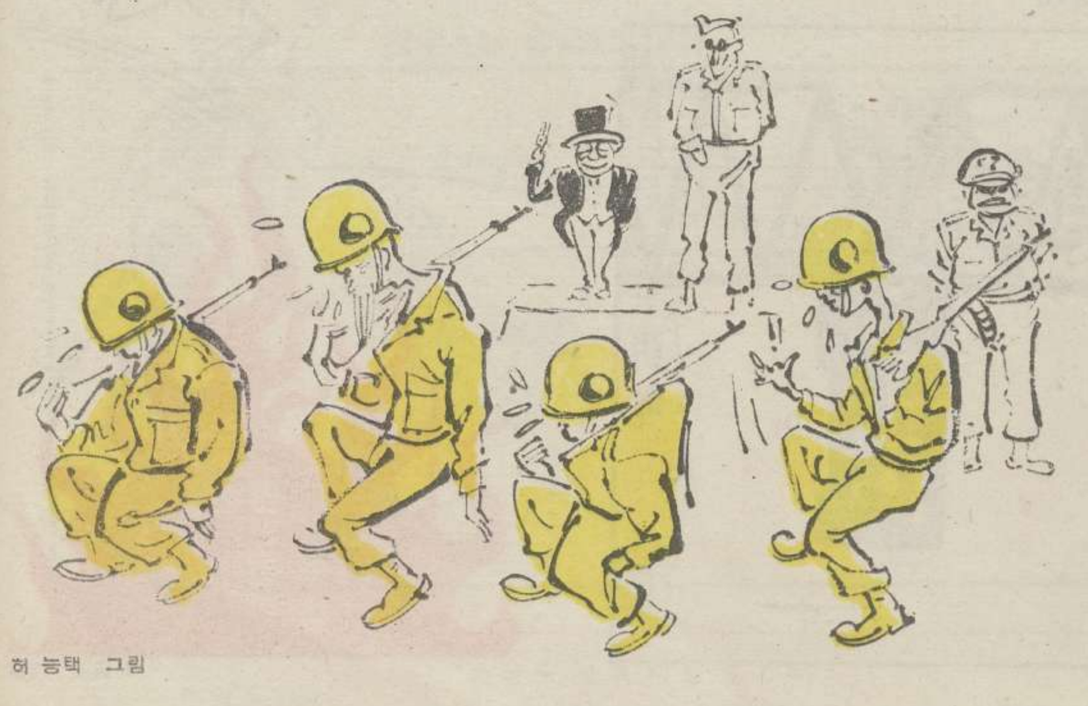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망 동

백 인균 그림

올치기에 걸린 신병들

《동아 일보》는 리 승만 도배가 괴뢰군 증강에 미쳐 날뛰면서 불구자들까지 올치기하여 끌어 넣고 있는 사실을 보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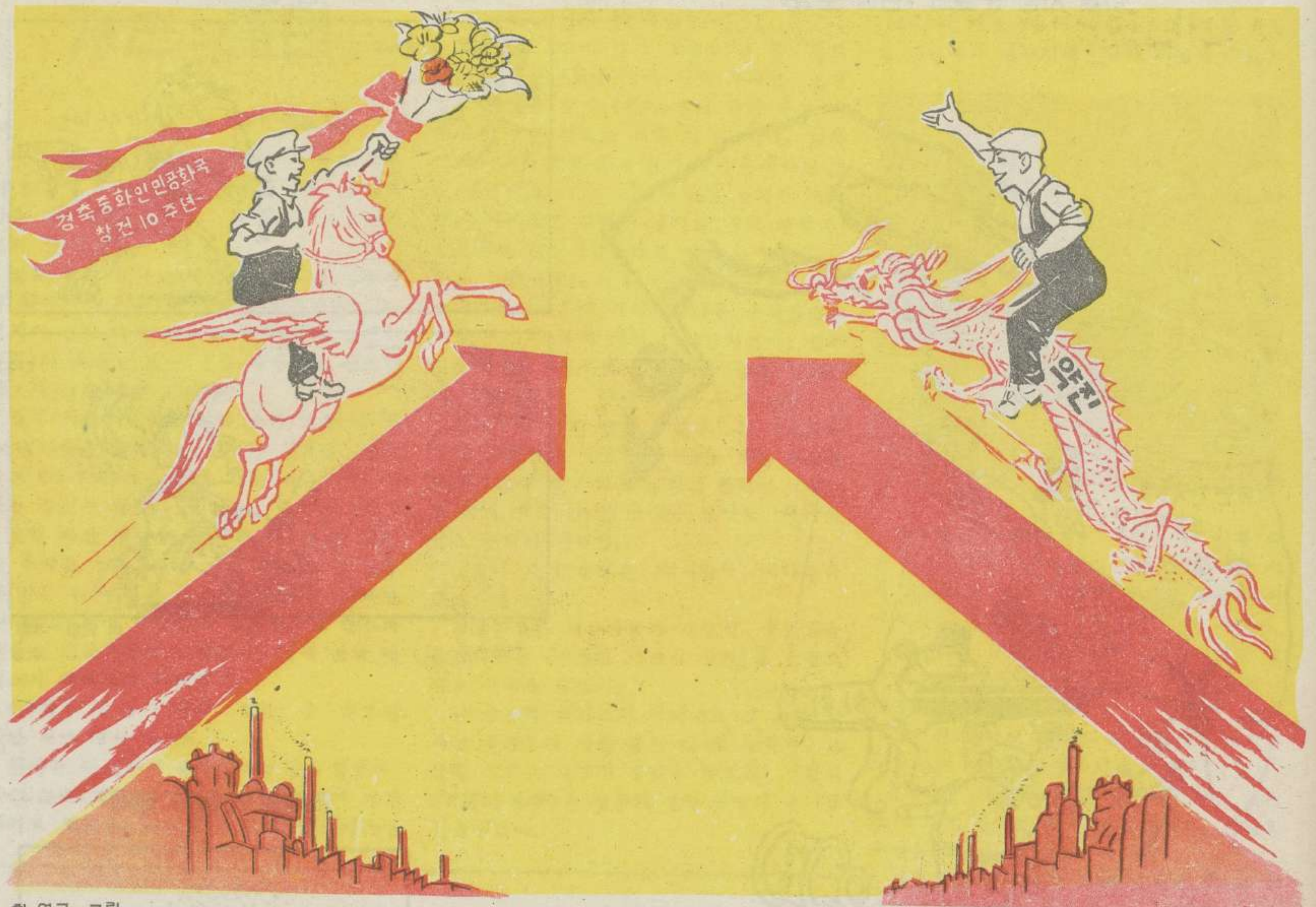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미제의 식민지 정책

함북도 경원군 훈융리 심 치원 그림

천리마가 대약진에게 축하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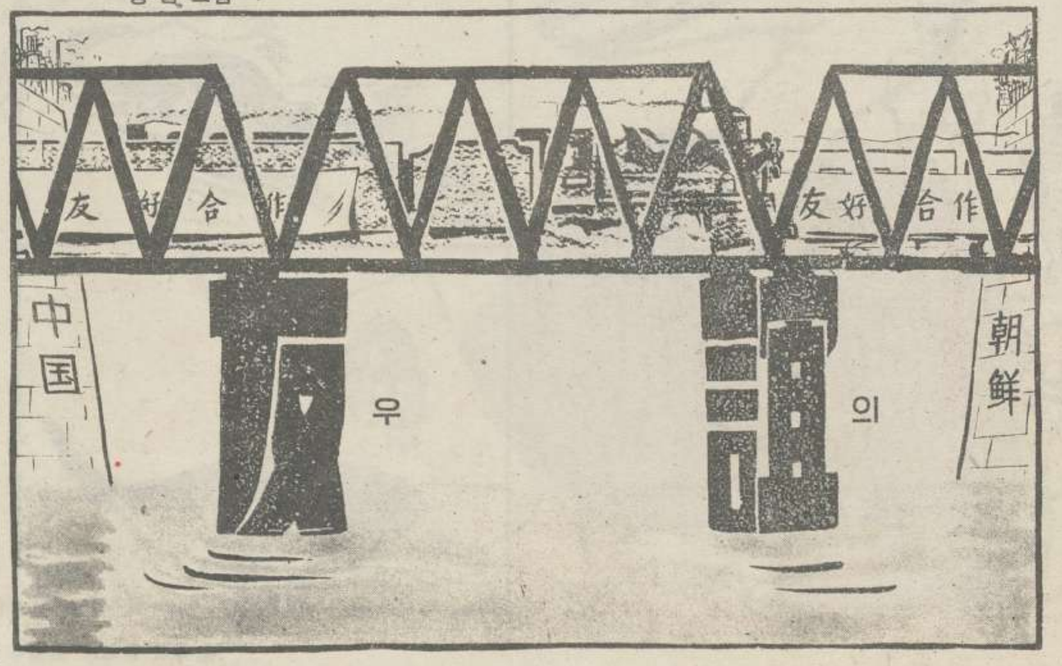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섭 지고 불에 뛰어들기

최 영근 그림

압록강에서

중국 《만화》에서 전재
영 탄 그림



사나니코네의 기도문

로 철

(신문 보도에 의하면 라오스 왕국 정부 사나니코네는 미제의 비호 하에 저들이 도발한 "소탕„작전이 뜻밖에도 애국적 인민들의 맹렬한 항쟁에 부디쳐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지경에 빠지게 되자 지난 9월 6일 비엔티안 국가 교회에서 "거의 1만 딸라의 비용을 새겨 가면서„ 3일간에 걸친 대기도회를 거행하였다 한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시여!

저 미치광이 같은 150여만 인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을 나려 주옵소서, 그 놈들은 오직 자기만 믿고 하느님을 믿지 아니 하오며 이 황폐한 라오스 땅만 사랑하고 부유한 미국을 사랑하지 아니하오며 무신론자만 모인 파테트 라오만 따르고 하느님 아들이 모인 왕국 정부는 따르지 아니 하오니

그 악하고 악한 무지한의 무리들에게 어서 퇴성 벼락의 큰 벌을 나려 주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시여!

성경에는 가라사되, 무릇 왼편 빰을 때리면 바른편 빰을 내놓으라고 일렀거니와 이 폭도의 무리들은 우리가 왼편 빰을 때려 주자 달려 들어 우리의 량볼따귀를 때려 주는 악한 이단자들이오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라오스 6개주 중 삼 누아 주와 퐁 살리 주에서는 우리를 거이나 다 몰아 내고 히엥쿄앙주, 무옹 코아주에서는 속속 우리 부대를 섬멸시키고 있아오니

이 신성 모독자들을 물리치는 힘이 하느님 아버지 아니고서 어데 있사오리까!

모든 것을 속속들이 굽어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옵소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우리는 미국과 손을 맞잡사옵고 《원조》라는 이름을 붙여 4천 7백만 딸라 분의 각종 무기, 100명 이상의 미 "군사 고문단„을 끌어 들였사오나 아직 3개월도 못되여 6개 대대의 무장 부대가 밀림 속에서 녹아 버리고 12대의 땅크가 재로 되였사오니 이제는 미국 상전이 말씀하는 대로 라오스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켜 "유. 엔 비상군„을 끌어 들이고 "세아토„의 "보호„를 받아야 할 줄 믿사오매 우리의 이 계획에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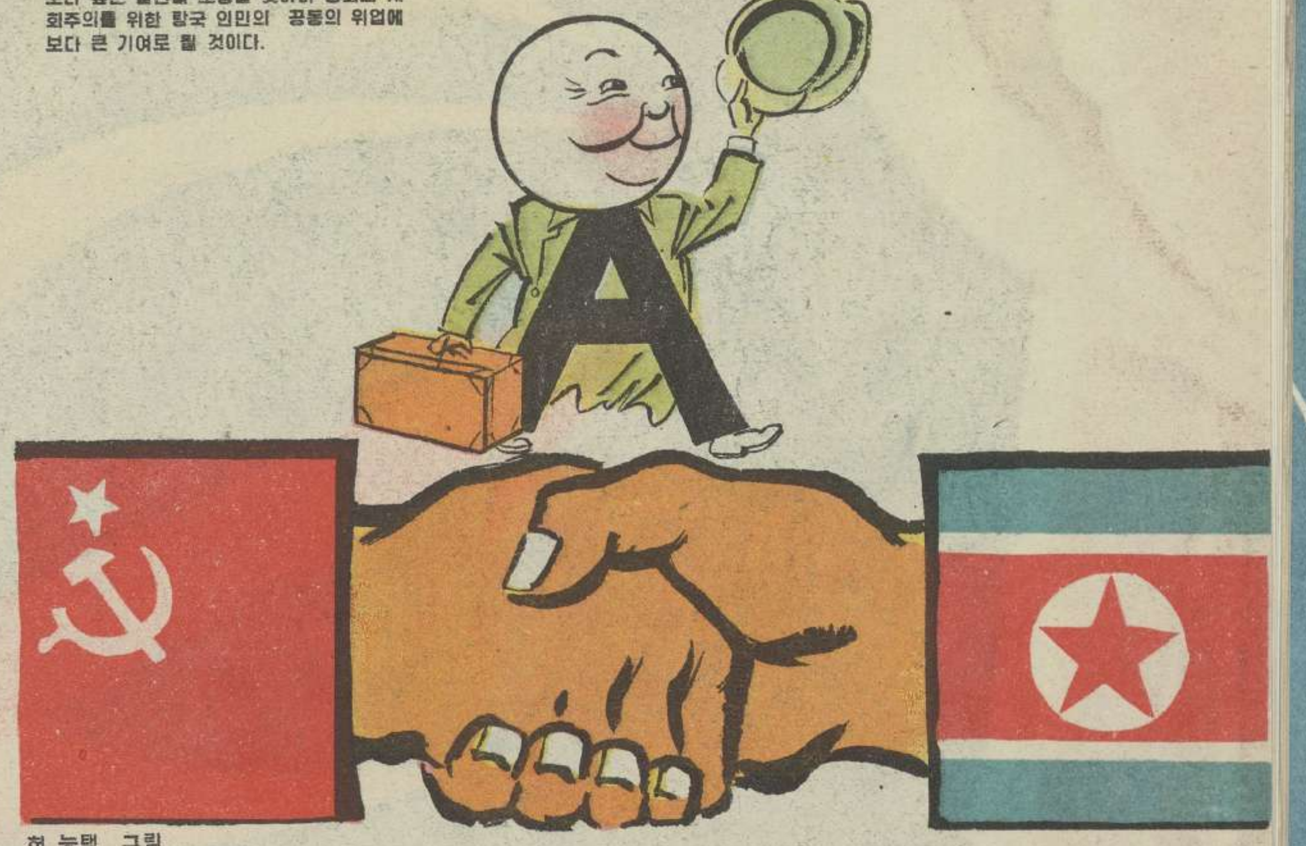
영지하고 지혜로운 하느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용기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 우리의 "소탕„ 작전을 이미 월남 민주 공화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간섭„이라고 선전하여 놓았삽고 "공산주의 침략„이란 패도 잊지 않고 걸어 놓았사오나 동풍은 계속 불어 서풍을 압도하옵고 수십억 평화 애호 인민은 "미제는 라오스에서 손을 떼라!„니 무어니 하고 웨치고 있사오매 오장 륙부가 공포에 싸늘하여지고 정신은 제몸에 붙어 있지 않은듯 떨리기만 하오니 아무쪼록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멸망하여 가는 자본주의가 하루라도 더 숨이 살아 있도록 깊이 깊이 보살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비나이다. 아멘.

지난 9월 7일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함에 있어서 쏘련이 우리 나라에 기술적 협조를 제공할 데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 협정은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와 과학의 보다 높은 발전을 보장할 것이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량국 인민의 공동의 위업에 보다 큰 기여로 될 것이다.

위대한 선물



허 능택 그림

라오스에 뻗치는 마수

조 명식 그림

편집 위원회
발 행 소 국 립 미 술 출 판 사
인 쇄 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758
발 행 1959. 9. 23
(값40전)

8034
Хвальсаль